

아동문학 작품에 드러난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 연구

방은수*

국문초록

기억이란 단순히 어떤 사건의 내용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틀이자, 가변적인 쟁점이다. 베트남 전쟁의 기억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자 취하는 관점에 따라 베트남 전쟁의 기억은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의 집단 기억은 국가/민족 서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의 집단 기억에 동화될 수 없는 기억들이 있다. 이러한 기억을 반(反)기억이라고 한다. 문학은 반 기억들이 분출되는 대표적인 통로이다.

아동문학의 장에서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 이들 작품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권위적인 기억에 맞서는 가운데,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서사적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기억이 어떻게 아동 문학 작품 속에서 부활하는지, 그 기억들이 기존의 집단 기억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미래 세대인 아동은 아동문학을 통해 베트남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베트남 전쟁 동화에 드러난 반 기억을 살펴보았다. 먼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 담론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참전 군인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 동화에 드러난 반기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로부터 유기된 군사노동자’, ‘집단학살의 기억과 가해자의 반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주제어 :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 동화, 반기억, 집단 기억, 기억의 정치

*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연구소 연구원, xcros82@hanmail.net

목차	
1. 들어가며 2.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담론	3. 베트남 전쟁 동화에 드러난 반기억의 양상 4. 나가며

1. 들어가며

베트남 전쟁은 한국 현대사의 지형을 바꾼 역사적 사건이다. 이 전쟁은 박정희 정권에게 정치적 반전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경제적 부흥을 위한 종잣돈을 마련하게 해주었다. 또한 미국의 대중문화가 참전 군인을 통해 한국 사회에 유입되었으며, 서구 사회에 대한 동경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과 달리, 이 전쟁은 점차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베트남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전쟁 관련 당사자들이 점차 세상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미국에게 한국 전쟁이 잊혀진 전쟁인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전쟁은 그렇게 잊혀져 가고 있다.¹

베트남 전쟁을 망각의 늪에서 건져 올리는 것은 대중문화이다. 베트남 전쟁의 참전 군인은 가요, 뮤직비디오의 소재로 활용되곤 한다. 예를 들어,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에서 김상사는 베트남 파병으로 돈을 많이 벌어난 일등 신랑감을 의미했다면, 유명 가수의 뮤직비디오에서 한국군은 공산 베트남으로부터 민간인을 구출하는 십자군으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² 그런데 대중적으로 소비된 베트남 전쟁의 이미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기억의 정치성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이미지들

1 한홍구, 「한국과 베트남 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제4집, 2001, 115면.

2 박태균,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역사비평』, 제80집, 2007, 289면.

은 국가 권력이 주조한 베트남 전쟁의 기억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국가 권력은 집단 기억의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마찬가지로 당시 권력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대중들의 기억에 그들의 입장을 주입하고 제도화했다. 국가 권력의 입장에서 베트남전 참전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 조국의 근대화를 위한 해외 진출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전쟁 영웅이자, 조국의 경제 발전을 이끈 경제 참병으로 부각되었다.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을 유포했으며, 오랜 세월 동안 그 시도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가 권력이 주도한 집단 기억에 동화될 수 없는 베트남 전쟁의 기억들이 있다. 이러한 기억을 반(反)기억(counter-memory)이라고 한다. 반기억은 기존의 집단 기억을 비판적으로 전복한 대항 기억을 의미한다.³ 베트남 전쟁이라는 동일한 사건을 두고, 반기억은 전혀 다른 입장을 드러낸다. 이로 인해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은 국가 주도의 집단 기억과 서로 화해할 수 없는 단절을 내포하고 있다.

반기억은 대체로 공적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한 채, 주변부로 밀려난다. 이로 인해 반기억은 집단 기억에서 벗어나 망각되거나 망각될 위험에 처한다.⁴ 문학은 반기억들이 분출되는 대표적인 통로이다. 문학은 그 특유의 본성상 사회 주변부의 반기억에 자신의 자리를 배정받고 싶어 한다. 문학 작품 속에 수용된 반기억은 국가 주도의 집단 기억에 도전하면서, 사회적 인정을 추구하는 역할을 한다.

아동문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아동문학의 장에

3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176면.

4 변학수, 『반기억으로서의 문학』, 글누림, 2016, 12면.

서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을 다룬 작품들이 있다.⁵ 이들 작품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권위적인 기억에 맞서는 가운데, 아동문학의 관점에서 당대 현실에 대한 서사적 대응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기억이 어떻게 아동 문학 작품 속에서 부활하는지, 그 기억들이 기존의 집단 기억에 어떤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왜 현 시점에서 아동 문학 작품을 통해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을 살펴봐야 하는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의문을 던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베트남 전쟁은 대중들에게 이미 잊혀진 과거가 되었고,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면 별로 회자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거의 사건에서 선택되고 보존된 기억은 현재에도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미래의 기반을 구축되는 활용된다.⁶ 또한 이러한 기억은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는 구성원의 개인적, 집단적 자아를 규정한다.⁷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은 비록 과거의 사건이지만, 현재의 한국 사회에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되풀이 되지 말아야 할 역사이다. 따라서 우리는 아동문학 작품을 통해 베트남 전쟁을 어떤 식으로 기억해야 할지, 후세에 이 전쟁에 대해 어떤 기억을 사회적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현재까지 한국 아동 문학 담론에서 베트남 전쟁은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않았다. 그간 이원수, 권정생, 임신행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연구가 전개되었을 뿐이다. 이원수, 권정생의 작품에서 베트남 전쟁은 인물의 심정이나 행위를 뒷받침하는 서사적 정황으로만 드러난다. 그리고 임신행의 작품에는 국가/민족 담론의 입장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

5 이원수의 『별 아기의 여행』과 『별』, 권정생의 『어느 가을날 할머니가 부르는 찬송가』, 조대현의 『우리 동네 김상사』, 심진규 『안녕, 베트남』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6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56면.

7 제프리 올릭, 최호근 외 역, 『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31면.

이들 작품 외에도 일부 연구는 베트남 전쟁과 관련된 동화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국가 권력의 전쟁 담론을 분석한 바 있다.⁸ 선행 연구물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에 대한 탐구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이 연구는 문학의 형식을 빌어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기억을 다룬 아동 문학 작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기억의 주체는 다양하다. 참전 군인과 그의 가족, 베트남 군인과 민간인, 라이파이한 등 베트남 전쟁의 집단 기억에서 배제된 주체들이 폭넓게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삼은 동화 중 반기억의 주체가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품을 선정하였다. 교과롭게도 선정한 작품 모두 참전 군인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다. 따라서 참전 군인의 형상을 중심으로 반기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문학 작품이 베트남 전쟁의 어떤 가면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미래세대인 아동에게 전하려는 베트남 전쟁의 기억에 대해 조명해 보고자 한다.

2.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 담론

1)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의 정치성과 허위성

인간은 기억에 의존해 삶을 살아간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

8 조경정, 「임신행의 베트남 전쟁 동화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원종찬, 「다문화 시대의 아동문학-한국 아동문학에 나타난 베트남」,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방은수,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동화에서 참전 군인 형상 연구 : 국가 권력의 베트남 전쟁 담론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한국아동문학학회, 2018, 97~118면.

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한다. 삶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과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기한다. 만약 우리에게 기억이 없다면, 인간이 경험하는 매 순간은 전부 파편화된 시간으로 존재할 것이며, 그의 삶 역시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채 부유할 것이다.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정체성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기억은 삶의 연속성을 확보해주며, 동시에 타인과 구분되는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편이다.

삶에서 기억이 가지는 중요성에 비해, 인간의 기억은 기능 측면에서 다소 불완전하다. 인간은 과거의 모든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 인간은 기억은 기본적으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에 대한 편집의 산물이다. 인간은 기억 과정에서 경험한 사건의 이미지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그렇지 않은 부분을 생략하는 식으로 구조화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억도 완전하지 않다. 기억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유동적이고, 포괄적이며, 서로 포개지거나, 망실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기억은 때로 전혀 의식하지 못한 상태로 조작되거나 왜곡된다.⁹

권력은 기억의 불완전성을 토대로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억과 망각의 정치에 앞장선다. 기억은 그 자체로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다. 개개인의 기억이 외재화되어 널리 공유될 때, 그 기억은 공적이며 사회적인 속성을 지니게 된다. 국가 권력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대중들의 집단 기억에 대해 편집권을 가지려 한다. 한 사회의 구성원에게 널리 공유되는 기억은 이질적인 개인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묶어내는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그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사건들의 이미지를 편집하여 허위적 기억을 주조한다. 이런 기억들을 각종 매

9 변학수, 위의 책, 88면.

체를 통해 대량으로 유포하고, 문화적으로 소비시킨다.¹⁰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담은 특정 기억을 내세워, 그 기억을 민중들에게 내면화하도록 압박한다. 이는 당시 대중 매체를 통해 유포된 베트남 전쟁의 시각적 이미지에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국가 권력은 베트남 전쟁과 관련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분할하여 규정했다.¹¹ 경부고속도로 건설, ‘기적을 낳는 맹호부대’와 같은 전승 성과 보도¹², 베트남인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한국군의 모습 등은 베트남 파병의 성과를 돋보이게 만든 시각적 전시였다. 반면에, 오천명의 전사자, 만명이 넘는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휴우증으로 고통받는 11만명의 참전 군인, 200만명에 이르는 베트남 민간인과 110만명의 공산진영 군인 사망자, 만 명이 넘는 라이파이한, 한국군의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 베트남 전쟁의 부정적 면모는 각종 미디어에서 증발해버렸다.¹³ 이런 식의 비대칭적인 양상은 국가 권력이 만들어낸 시각적 분할의 결과이다. 그 결과, 국가 권력이 주조한 베트남 전쟁의 시각적 이미지들은 대중들의 기억 속 깊은 곳에 침윤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10 제프리 올릭,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149면

11 자크 랑시에르에 따르면, 정치 영역이 담론의 실천 과정에서 ‘시간들’과 ‘공간들’,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 그리고 ‘발화’와 ‘잠음’의 경계를 규정한다. 즉, 정치 권력이 공동체가 공유하는 공통적인 것의 재현과 은폐 간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대개 권력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지배 이데올로기의 시각적 전시 안에 국민들을 안주시키고자 한다. 예컨대, 냉전 시대 남한에서 북한은 자유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악마적 타자로 재현되는데, 이는 당시 정권이 조장한 시각적 재현의 한 양상이다. 이런 식의 시각적 재현은 북한에 대한 권력의 의도를 민중에게 내면화시킨다.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b, 2008, 14~15면; 테드 휴즈, 나병철 역,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소명출판, 2013, 23~25면.

12 김미란, 「베트남전 재현 양상을 통해 본 한국 남성성의 (재)구성- ‘아오자이’와 ‘베트콩’, 그리고 ‘기적을 낳는 맹호부대’의 표상 분석」, 『역사문화연구』 36,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195면.

13 김미란, 「베트남 참전 담론과 미디어-탈식민 민족주의적 관점과 ‘자국 중심적참전론’, 그 변화과정에서의 미디어의 대중동원 전략」, 『역사와 문화』 제19집, 문화사학회, 2010, 105-107면.

결국 베트남 전쟁의 집단 기억은 국가 권력이 벌인 기억 정치의 산물이다. 전쟁은 승패와 상관없이 상당한 수준의 물적·인적 피해를 동반한다. 특히, 참전 군인은 국가의 의지를 수행하는 행위자이기도 하지만, 전쟁의 잠재적 희생자이기도 하다. 전쟁의 위험성은 국민에게 참전을 망설이는 원인이 된다. 국가 권력은 전쟁 참전을 독려하기 위한 담론 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권력은 베트남전 참전을 위대한 희생으로 미화하는 가운데, 신성한 대의를 실천하는 영웅적인 의무로 위치시켜왔다. 반면에 참전 동기를 약화시키는 사건의 이미지들을 말소하거나 삭제해버렸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은 사회 구성원의 통합을 이뤄내면서, 베트남 전쟁 참전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집단 기억은 당대 권력에게 정통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정치적 수단이었다. 국가 권력은 그들의 입장을 반영한 서사를 내세워 베트남 전쟁의 기억을 독점하려고 시도한다. 결국 베트남 전쟁의 집단 기억에는 힘 있는 자들의 목소리가 담기기 마련이다. 권력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특정 기억에 단일하고 배타적인 특권을 부여한다. 이런 기억은 대중들에게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일종의 신화로 만들어버린다.

2) 반기억의 부상과 서사적 대응

집단 기억의 형성은 베트남 전쟁의 실상에 대한 사각 지대를 만들어낸다. 그들은 현실의 목적과 미래를 염두에 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베트남 전쟁의 실상을 조작한다. 권력은 공적 영역에서 개인에게 기억과 망각을 조장하는 것이다. 특별히 기억하고 싶은 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끌어내린다. 결국 집단 기억

이란 권력의 의도나 체제에 반발하는 기억들을 추방하거나 억압하면서 성립하는 셈이다.¹⁴ 따라서 베트남 전쟁을 중심으로 한 집단 기억 형성의 이면에는 집단 망각이 존재한다.

하지만 시간의 착취를 뚫고 올라오는 베트남 전쟁의 기억이 있다. 이런 기억은 국가 주도의 집단 기억과 분열 내지 갈등의 관계에 놓여 있다. 이런 기억은 기존의 공적 영역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반기억이다. 반기억은 권력에 의해 오랜 세월 동안 침묵 속 묻혀져 버린다. 반기억에는 권력에 저항적이면서, 동시에 억압받은 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정치 권력의 지형이 변화하고, 베트남 전쟁의 기억에 대한 국가 권력의 독점이 해체되기 시작한다. 그 결과, 기존의 집단 기억에 의문이 제기됨과 동시에, 침묵 속에 묻혀 있던 반기억이 새롭게 부상한다.¹⁵

반기억의 부상은 베트남 전쟁 기억을 조작, 왜곡하려는 권력의 시도가 항상 성공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본래 기억은 다양한 주체들이 관여하는 가운데, 복잡다기한 맥락 속에서 생산된다. 역사적 사건의 어떤 부면을 부각시키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기억의 내용은 다채롭게 분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놓고, 각 주체들 간에 기억 투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의 기억 역시 마찬가지이다. 권력이 내세운 집단 기억과 무관하게, 이 전쟁이 남긴 고통과 상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을 비롯

14 김향, 「분단의 기억, 기억의 정치」, 『인문논총』 제73권 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369면.

15 역사적 사건에 대한 반기억의 부상은 아동문학 연구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다룬 아동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5.18을 기억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한 연구물이 대표적이다. 안점옥, 「5.18을 기억하는 아동문학의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2017, 363~398면.

하여, 그들의 가족, 베트남 군인과 민간인, 라이파이한 등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베트남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의 기억은 국가 주도의 집단 기억에 구멍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야기는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을 기록하고, 대중들에게 알리는 기억 공간이다. 베트남 전쟁이라는 과거 사건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이 남긴 고통과 상흔은 아직도 현재 전쟁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야기는 문화적 기억 양식으로서¹⁶ 공적 영역에서 추방되어 망각된 반기억을 담아낸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베트남 전쟁에 대한 상흔의 기억을 타자들과 나누어 갖는다. 동시에 베트남 전쟁 이면에 숨겨진 국가권력의 메커니즘과 그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을 다룬 문학 작품은 반기억과 문학적 상상력이 교차하는 하나의 기억 공간이 된다.¹⁷

문학 작품에서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을 다루는 궁극적인 이유는 간단하다. 우선 권력이 내세운 집단 기억에 대항하는 반기억을 드러내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을 둘러싼 대립은 결국 서로 다른 이해 관계를 지닌 주체 간의 기억 투쟁이다. 그런데 반기억은 공적 담론에서 역사적인 조명을 받지 못했으며, 결과론적으로 합당한 역사적 평가를 부여받지 못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는 은폐된 진실을 들추고, 동시에 그 사건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이야기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소환하면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을 위한 기억 공간으로 기능한다.

베트남 전쟁을 다룬 문학작품은 국가 권력이 주도한 기억의 정치성과

16 알라이다 야스만, 위의 책, 105면.

17 박은주, 「기억과 망각의 역설적 결합으로서 글쓰기」, 『기억과 망각』, 2003, 313면.

허위성을 주제화한다. 과거 국가 권력은 베트남 전쟁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 심급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베트남 전쟁의 기억은 국가나 민족을 주인공으로 삼는 성장 서사이어야 했다.¹⁸ 이 과정에서 참전 군인을 비롯한 민중들은 국가와 민족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국민으로 호명되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중의 삶은 국가와 민족의 성장서사처럼 발전적 궤도를 그리지 않았다는 점이다.¹⁹ 이에 문학작품에서는 민족의 성장 서사로 수렴하지 않는 개인의 비극적 삶을 그린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권력이 주도하는 집단 기억의 정치성과 허위성을 폭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3. 베트남 전쟁을 다룬 동화에 드러난 반기억의 양상

1) 국가로부터 유기된 군사 노동자 : 「우리 동네 김상사」

「우리 동네 김상사」는 1996년 『아동문예』 5월호에 수록된 조대현의 단편 작품이다. 이 작품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제대 이후 직면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다루고 있다. 조대현은 「우리 동네 김상사」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의 부조리하고 어두운 면을 들추는 사회 고발적인 작품을 선보인 바 있다. 「우리 동네 김상사」는 조대현의 문학적 지향을 투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김상사’로 대표되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신화에 균열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반기억의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18 김향, 위의 논문, 367~368면.

19 김향, 위의 논문, 368면.

필요한 지점이다.

「우리 동네 김상사」의 주인공 김상사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다. 그는 지난해 가을, 아파트 단지가 있는 동네로 흘러 들어온다.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 그를 불량배나 거지로 간주했다. 그는 행색이 초라했을 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앞에서 병나발을 불며 술을 자주 마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늦은 가을날부터 김상사는 아파트 단지 앞에서 교통봉사를 하기 시작했다. 그는 깔끔한 해병대 복장에 온갖 배지와 훈장이 달린 군모를 쓴 채, 수신호로 차량정리를 해주었다. 그의 봉사 덕분에 그 일대 교통 사정이 한결 수월해졌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차 마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좋은 평판을 얻게 된다. 그러던 중, 그가 월남전 참전 군인이라는 이력과 근처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아이들은 우연한 기회에 김상사와 스스럼없이 지내는 사이가 된다. 아이들은 김상사에게 월남전 얘기를 해달라고 한다. 이때 김상사의 반응은 싸늘하다.

“그런데, 아저씨는 월남전 참전 용사라면서요?”

“누구한테 들었나?”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데요, 뭐. 아저씨, 재미있는 얘기 좀 해 주세요. 아저씨도 베트남 많이 죽였어요?”

전쟁이야기가 나오자 아저씨는 시큰둥한 얼굴이 되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 버렸습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니야.”

아저씨의 대꾸가 너무나 무뚝뚝해서 우리는 그만 무안을 당한 기분이었습니

다. 그래서 아무말도 못하고 서로 멍뚱멍뚱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저씨는 우리에게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는지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은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지. 적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군도 똑같이 죽게 돼. 그뿐인 줄 아니?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아가 생기고 집이 불타는데! 너희들은 좋은 시대에 태어나 그런 것을 잘 모를 거다.”²⁰

아이들은 김상사의 싸늘함에 당황한다. 김상사는 베트남전의 참상에 대해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이러한 김상사의 반응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다. 그는 전쟁 상황 속에서 심리적·육체적 폭력을 겪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김상사는 전쟁으로 인한 민간인의 피해를 언급한다. 이는 김상사가 베트남 전쟁 이면에 도사리는 참혹함을 온몸으로 체험했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부분이다.

흥미로운 것은 김상사가 자신의 집에 항상 해병대 복장을 반듯하게 걸어놓는다는 점이다. 깨끗한 해병대 복장은 그의 정체성이다. 그 정체성은 국가가 부여한 것이다. 국가는 베트남전 참전을 신성한 대의로 치켜세웠다. 하지만 김상사의 깨끗한 군복 이면에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참혹한 기억이 존재한다. 결국 그가 말하지 못하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과 깨끗한 해병대 복장이 완벽하게 대비된다. 이는 그의 균열된 정체성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김상사는 매우 궁핍하다. 그는 고엽제 휴우증으로 수시로 몸이 붓고 가렵다. 그럼에도 그는 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진찰도 받지 못했다. 국

20 조대현, 「우리 동네 김상사」, 『조대현 동화 선집』, 지식을 만드는 지식, 2013, 76면. (아동문에 1996년 수록작)

가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는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막노동판을 전전하는 처지가 되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영겨버린 그의 삶은 포장마차 일에서 완전한 비극으로 마무리된다. 막노동이 불가능해지면서, 김상사는 포장마차 일을 시작한다. 그의 새로운 일은 곧 난관에 봉착한다. 김상사는 아이들을 괴롭히던 불량한 형들을 혼내준다. 그의 선의는 엉뚱하게도 아파트 주민의 분노를 불러왔다. 불량한 형들의 부모들이 김상사를 폭행범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김상사는 경찰서에 끌려가게 되고, 그 사이 부모들은 그의 포장마차를 큰 개천 바닥으로 내동댕이쳤다.

김상사는 그날 자정 술을 마시고 포장마차를 다시 아파트로 끌고 온다. 그 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포장마차를 부순다. 아파트 주민들은 창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볼 뿐, 어느 누구도 그를 위로하거나 같이 슬퍼해주지 않는다. 이는 곧 베트남전 제대 군인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미한다. 그렇게 김상사는 자신의 해병대 복장을 가지고 마을에서 사라진다.

이 작품은 종전 이후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삶을 보여준다. 국가 권력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을 조국 근대화를 이끈 전쟁 영웅으로 미화하면서, 참전을 독려했다. 김상사도 국가가 내세운 대의를 가슴에 품고 베트남전에 참전했다. 하지만 그는 사실상 미국에 고용된 군사 노동자에 불과했다.²¹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은 미군의 귀찮고, 힘든 일을 ‘대체’하

21 베트남에 파병된 한국군은 미국에 의해 고용된 ‘용병’의 성격을 지녔다. 실제로 미군은 한국군의 참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의 군사노동은 미군의 일을 대신하는 대리노동적 성격을 지닌다. 한국은 남베트남의 우방이라서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 참전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정희 정

는 군사노동력으로 활용되었다.²²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서적·신체적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참전 군인은 제대 이후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다. 하지만 국가 권력은 제대 군인의 열악한 처지를 지원하는 보훈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아무런 조치 없이 그들을 사회적으로 방치한 것이다. 그 결과, 제대 군인은 더욱 힘든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 작품은 베트남전으로 고통을 겪는 제대 군인의 현실을 환기시킨다. 김상사의 현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과 완전히 상반된다. 제대 군인에게 참전의 휴우증은 오롯이 개인적인 몫이 되었으며, 국가로부터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소모품처럼 쓰고 버려진 것이다. 이는 작품의 중반부에서 김상사의 악에 받친 분노와 쓸쓸히 사라지는 마지막 모습에서 극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지점으로 이 작품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집단 기억의 허위성 지적하면서 동시에, 피해자로서 참전 군인의 삶을 재조명하는 반기억을 드러낸다.

2) 집단 학살의 기억과 가해자의 반성 : 「안녕, 베트남」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베트남 전쟁 중 한국군의 행적과 관련하여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그것은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다. 이 보도 이후에 베트남 전쟁 한국군의 지위를 둘러싼 기억 투쟁이 본

권은 미국 정부와 남한의 젊은이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중재자 역할을 했다. 따라서 베트남 파병은 미국의 돈을 받고 남한의 젊은이들을 군사 노동자로 수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92~93면.

22 한국군은 미군에 비해 인명손실의 가능성이 크고, 민간인 학살의 위험성이 큰 소규모 토벌 작전에 유난히 자주 투입되었다. 이런 식의 전투에 자주 노출된 참전 군인은 제대 후 우울,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과 정신적 문제를 경험했다. 또한 참전 군인 중 일부는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겪고 있다. 한홍구, 위의 논문, 125면.

격화되었다. 참전군인 단체는 이 보도에 곧바로 반발했으며, 양민 학살 자체를 부정했다. 이런 모습은 참전을 정당화하는 국가 권력의 입장과 유사한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²³ 하지만 한국군이 자행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그동안 은폐되었던 피해자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파고드는 아동문학 작품이 있다. 바로 심진규의 「안녕, 베트남」이다.

「안녕, 베트남」은 2018년에 출간된 작품이다. 그동안 아동문학계에서는 베트남 전쟁을 다룬 작품이 유독 빈곤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작품은 오랜만에 베트남 전쟁을 본격적으로 다룬 장편이다. 특히, 이 작품에서는 베트남 민간인 집단 학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조명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기억의 측면에서 해석의 여지를 지니는 텍스트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의 주요 인물은 권도현과 그의 할아버지이다. 할아버지는 베트남전 참전 군인이다. 어느 날, 할아버지는 베트남으로 여행을 보내달라고 떼를 쓴다. 도현이는 할아버지의 베트남 여행에 동행한다. 그런데 베트남 여행 과정에서 도현이는 50년 전 베트남 전쟁 당시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된다. 이때 도현이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한국군의 모습을 목격한다.

“사실대로 말해! 너희 중 베트콩 있지?”

김 중위가 사람들을 향해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서인지, 정말 몰라서인지 웅성대기만 할 뿐이었다. 군인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

23 최정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 공식적인 기억과 대항 기억의 차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9집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5, 86면.

해 총을 겨누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방아쇠를 당길 것만 같았다.

“말 안하겠냐? 지금 우리 애들 몇 명이 죽은 줄 알아?”

“말해! 누가 베트콩이야? 누가 베트콩에게 우리 가는 길을 알려줬냐고?”

김중위는 청년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총을 겨눴다. (중략)

“탕!” 티엔과 나는 깜짝 놀라 자리에 주저 앉았다. 티엔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잠시 후 총소리가 요란하게 들렸다. 군인들이 마을 사람들 향해 총을 쏘고 있다. 믿을 수가 없었다.²⁴

인용문은 도현이가 티엔과 함께 목격한 학살 현장의 장면이다. 도현이는 전쟁이 벌어지는 밀림 한 가운데에서 베트남 소년 티엔을 만난다. 도현이는 티엔의 도움으로 한국군이 주둔하는 베트남 마을에서 묵게 된다. 그런데 이 마을에서 한국군은 베트콩의 습격을 받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다. 김중위를 비롯한 한국군은 베트콩을 색출하기 위해 마을 사람을 협박한다. 한국군의 협박은 말로만 그치지 않았다. 베트콩 색출이 용이하지 않자, 한국군은 그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한다. 한국군의 만행으로 인해 티엔의 할머니와 동생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한다. 티엔의 비극적인 가족사도 여기서 시작하는 것이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이 양민을 학살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게 양민보호를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마을이 베트콩의 활동을 뒷받침하는 하부구조라는 사실이 강조되었다.²⁵ 또한 전쟁은 최소한의 인간성마저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몬다. 한국군은 베트콩의 공격으로 동료를 잃었다. 그들은 동

24 심진규, 『안녕, 베트남』, 양철북, 2018, 108~110면. <중략, 인용자>

25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92~96면.

료의 복수를 위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베트콩을 죽여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베트콩과 민간인의 구분은 사실상 무의미했다. 단 한 명의 베트콩이라도 사살할 수 있다면, 양민 학살도 서슴치 않았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티엔은 도현이의 할아버지와 인연이 있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할아버지는 자신을 유독 따르는 티엔을 아꼈다. 그는 티엔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에게도 호의를 베풀었다. 하지만 전쟁은 할아버지의 호의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전투 과정에서 우연히 티엔의 부모님과 조우했다. 할아버지는 티엔의 부모님을 풀어주었지만, 그의 동료는 그들을 베트콩으로 오인해 결국 사살하고 만다. 할아버지는 혼자가 된 티엔을 아는 사람에게 맡겼다. 하지만 얼마 뒤에 티엔은 사라졌고, 할아버지는 그대로 귀국길에 오르고 말았다.

50년이 넘어서, 할아버지가 베트남을 다시 찾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티엔에 대한 죄책감을 지워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베트남 여행에서 수소문 끝에 티엔과 재회한다. 할아버지는 티엔에게 자신의 잘못을 사과한다. 티엔은 할아버지의 사과에 감사하며, 그를 마을 입구로 데려간다. 그 곳에는 한국군 증오비가 있었다. 증오비 주변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호아쓰라는 꽃이 피어 있었다. 티엔은 전쟁이라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증오비 둘레에 호아쓰를 심고 가꾸었던 것이다. 티엔을 만난 후,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난 과오를 고백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참전 군인들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증언자로 나선다.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명령을 내리면 총을 들었고, 쏘라면 쏘어요. 베트콩은 사람이 아니라고 수없이 들었어요. 내가 쏜 총알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도 모른 채 마구 방아쇠를 당겼어요. 그리고 나서 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더러는 임신한 여자도 있…….”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우린 모두 악마였어요. 옆에 같이 있던 전우가 죽고 나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총을 쏘라는 명령만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총을 쏘고……. 우리가 누구 죽인다는 생각 못 했어요. 복수라고 생각했어요. 어제까지 옆에서 자고 있던 전우가 갑자기 죽었으니까요. 그렇게 총을 쏘고 복귀하면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안했어요. 누군가 말을 걸면 폭발해 버릴 것만 같았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베트남 국민들에게 정말 미안해요.”²⁶⁾

할아버지의 증언에는 전쟁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학살에 연루된 한 개인의 반성이 담겨있다. 학살 당시 그는 악마와 다를 바 없었다. 죽은 전우의 복수를 위해 아무렇게나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전쟁이 종료된 이후, 할아버지는 과거 전쟁에 대한 죄책감을 호소한다. 어린아이와 임신한 여자에게 향했던 총질이 그의 삶을 무겁게 짓눌렀기 때문이다. 이런 할아버지의 모습에는 당시 국가 권력이 미화했던 전쟁 영웅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전쟁의 상흔에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한 인간이 있을 뿐이다. 결국 그의 증언은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과오를 인정하고, 베트남 국민들에게 남긴 상처와 고통에 대해 반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베트남 곳곳에 세워진 증오비는 한국군의 양민 학살 사건이 죽은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진행 진행형임을 알려준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은폐되었다. 한국 정부는 양민 학살이라는 전쟁 범죄

26 심진규, 『안녕, 베트남』, 양철북, 2018, 194~195면.

를 인정하기 부담스러웠고, 베트남 정부는 승전의 역사에 흠결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또한 참전 군인들은 여전히 베트남 전쟁의 가해자로 호명되는 것에 저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은 베트남 전쟁의 상흔을 극복하고, 생산적인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한다. 우리는 망각을 강요당했던 역사적 사건을 제대로 기억할 수 있을 때, 동일한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작품은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을 조명하면서, 동시에 아동 독자들에게 전쟁을 정당화하지 않는 평화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 결론

베트남 전쟁은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한국 사회의 공적 담론에서 망각된 역사가 되어가고 있다. 그렇다고 이 전쟁이 남긴 고통과 상처의 기억까지 망각되지 않았다. 상흔의 기억은 오롯이 개인적인 몫으로 남겨진 채, 종전 이후 지금까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 현지 곳곳에 세워진 한국군 증오비는 베트남 전쟁이 망각되어서는 안되는 역사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베트남 전쟁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해결해야 할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 어떤 기억을 미래세대에게 사회적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는가’이다. 기억이란 단순히 어떤 사건의 내용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틀이자, 가변적인 쟁점이다. 베트남 전쟁의 기억 또한 마찬가지이다. 각자 취하는 관점에 따라 베트남 전쟁의 기억은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낸다. 하지만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베

트남 전쟁의 기억은 국가/민족 서사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문학 작품은 사정이 다르다. 문학 작품은 침묵 속에 가라앉은 베트남 전쟁의 어두운 면모를 드러내는 기억공간이다. 따라서 문학작품 속에 담긴 베트남 전쟁에 대한 탐구는 결국 반기억의 탐구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아동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베트남 전쟁의 반기억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밝힐 것이 있다. 베트남 전쟁에 대한 반기억의 주체들은 다양한 층위로 존재한다. 하지만 연구자의 능력 부족으로 아동문학 작품 속에서 반기억의 주체들을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 이런 지점을 보완하려면, 베트남 전쟁의 수난을 겪은 주체들을 다룬 작품의 발굴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현재 시점에서 작가들이 베트남 전쟁을 문학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부족한 지점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조대현, 「우리 동네 김상사」, 『조대현 동화선집』, 지식을만드는지식, 2013.(1996. 5. 『아동 문예』 수록작)
심진규, 『안녕 베트남』, 양철북, 2018.

2. 논문 및 평론

- 김미란, 「베트남전 재현 양상을 통해 본 한국 남성성의 (재)구성- ‘아오자이’와 ‘베트콩’, 그리고 ‘기적을 낳는 맹호부대’의 표상 분석」, 『역사문화연구』 제36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10, 193~228면.
김미란, 「베트남 참전 담론과 미디어-탈식민 민족주의적 관점과 ‘자국 중심적 참전론’, 그 변화과정에서의 미디어의 대중동원 전략」, 『역사와 문화』 제19집, 문화사학회, 2010, 105~137면.
김 향, 「분단의 기억, 기억의 정치」, 『인문논총』 제73권 2호,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6, 361~392면.
방은수, 「1970년대 베트남 전쟁 동화에서 참전 군인 형상 연구 : 국가 권력의 베트남 전쟁 담론과 연관성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문학연구』, 한국아동문학학회 제34호, 2018, 97~118면.
안점옥, 「5.18을 기억하는 아동문학의 방식」,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1호, 2017, 363~398면.
조경정, 「임신행의 베트남전쟁 동화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최정기,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 공식적인 기억과 대항 기억의 차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제9집1호, 전남대학교 5.18 연구소, 2005, 65~92면.
한홍구, 「한국과 베트남 전쟁」, 『내일을 여는 역사』 제4집, 2001, 115~126면.

3. 단행본

- 김현아,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책갈피, 2002.
박은주, 「기억과 망각의 역설적 결합으로서 글쓰기」, 『기억과 망각』, 2003.
변학수, 『문학적 기억의 탄생』, 열린책들, 2008.
변학수, 『반기억으로서의 문학』, 글누림, 2016.

알라이다 아스만, 변학수·채연숙 역, 『기억의 공간』, 그린비, 2011.

원종찬, 「다문화 시대의 아동문학-한국 아동문학에 나타난 베트남」,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이진경, 나병철 역, 『서비스 이코노미』, 소명출판, 2015.

자크 랑시에르, 오윤성 역, 『감성의 분할』, 도서출판b, 2008.

제프리 올리, 최호근 외 역, 『국가와 기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6.

제프리 올리, 강경이 역, 『기억의 지도』, 옥당, 2011.

테드 휴즈, 나병철 역,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소명출판, 2013.

Abstract

A Study on Counter-memory of Vietnam War
in Children's Literature

Bang, Eunsoo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memory of the Vietnam War reveals a completely different aspect, depending on the views taken. To date,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Vietnam War in Korean society has not escaped the borders of national / national narratives. But there are memories that cannot be assimilated into the collective memory of the Vietnam War. This memory is called counter-memory. In the chapter of children's literature, there are works dealing with the counter-memory of the Vietnam Wa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 counter-memory of the Vietnam War is revived in the works of children's literature and how the memories are creating a crack in the existing collective memory.

To this end, we looked at the anti-memory revealed in the Vietnam War assimilation. First, we discussed the memory discourse about the Vietnam War. Next, this study analyzed the anti-memory revealed in the Vietnam War assimilation, mainly with veteran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possible to

confirm the ‘military workers abandoned from the state’, ‘the memory of the massacre and the reflection of the perpetrators’.

■ Key words : Vietnam War, Vietnam War Donghwa, Counter-memory, Collective Memory, Politics of Memory

■ 논문접수일: 2019. 11. 6. / 심사기간: 2019. 11. 25. ~ 2019. 12. 6. / 게재 확정일: 2019. 12. 8.